총재
메시지

슈바이처에서 빌 게이츠로… 기부는 왜 위대한가?

2018

총재 **이 순 동**
국제로타리 3650지구

존경하는 3650지구 모든 로타리안과 가족 여러분.

2018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7월, 총재에 취임한 후 Family Together라는 지구 발전방향을 제시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이 취지에 십분 공감하고 협력해주셔서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이 Family Together를 확산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결실을 거두는 하반기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임기 중에 회원순증 500명, 지구 회원 2,500명 목표를 달성한다면 우리가 바로 'Pride of RI 3650' '新 로타리 시대'를 연 주역이었다는 자부심을 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연말, 안타깝게도 우리와 함께 활동하던 서울동방로타리클럽 서삼석 회장께서 갑자기 작고해 1월 2일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고인의 두 아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었는데, 선친의 유지를 이어 로타리 회원이 되라고 권유했더니 장남이 그 자리에서 회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가 Family Together 정신입니다. 자녀들에게 로타리 멤버십을 상속하고, 배우자나 로타랙트 출신 청년들, 로타리 장학생들을 위성클럽으로 연계시켜서 넓은 의미의 '가족연합 형태로 나아가는 Family Together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각 클럽마다 좋은 결실을 맺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7-18년도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활동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2월 9일부터는 평창올림픽이 개막하고, 곧이어 설 연휴에다 패럴림픽까지 끝나면, 3월 29(목)~30(금)일에는 연중 최대 행사인

> *단순 비교를 해선 안 되겠지만, 지금은 오지에서 직접 봉사하는 슈바이처 방식보다는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기부하는 빌 게이츠와 같은 봉사가 더 큰 효과를 보이는 시대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기부, 이것은 로타리안으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요, 인생의 보물을 찾는 일입니다."

제56년차 지구대회가 하얏트호텔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창올림픽 개막 이전까지 채 한 달이 안되는 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각 클럽에서 세운 목표를 세심하게 챙겨서 1월중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는 각오로 속도를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엇보다 "기부의 중요성" 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은 기부가 더 효과적이고 위대한 봉사가 되는 시대입니다.

영국의 자선기부 평가단체인 'Givewell' 의 평가 사례를 보면 이같은 사실이 더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면, "영국 의사가 의료환경이 열악한 에티오피아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런던에서 일하면서 수입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 나은가?" 를 평가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한 명이 부유한 나라에서 일하면 평생 2명의 생명을 구하는 반면,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면 매년 4명씩, 42년간 일하면 168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안으로, 영국에서 일하면서 수입의 절반을 기부하면 42년 동안 676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평균 연봉이 약 11만 달러인데 42년간 절반을 기부할 경우, 에티오피아에서 말라리아 예방에 쓰이는 모기장 보급예산 3,400달러당 1명의 목숨을 구한다고 하니 의사 한 명이 총 676명의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하는 봉사 이상으로 "정기적인 기부" 가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단순 비교를 해선 안 되겠지만, 지금은 오지에서 직접 봉사하는 슈바이처 방식보다는 자신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기부하는 빌 게이츠와 같은 봉사가 더 큰 효과를 보이는 시대라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로타리의 위대함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 합쳐서 다함께 해내는 데 있습니다. 폴리오 플러스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개인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전 세계 122만 로타리안이 있기에 완전 박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기적인 기부', 이것은 로타리안으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요, 인생의 보물을 찾는 일입니다. 노크하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클럽의 많은 회원들이 기부에 참여하도록 서로 권유해주시고, 고액기부자로 가입할 수 있는 회원들을 발굴해 기부의 보람을 함께 나누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더 뛰겠습니다. 1월 한 달 속도를 내서 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